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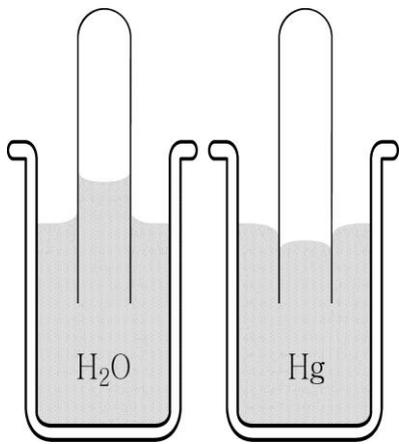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관을 <그림>의 (a)와 같이 물( $H_2O$ )에 넣으면, 물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어 올라가고 유리관 내의 수면은 오목한 모양을 띠게 된다. 반면 <그림>의 (b)와 같이 유리관을 수은(Hg)에 넣으면, 수은은 유리관 안쪽에서 내려가고 유리관 내의 수은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응집력은 한

물질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입자들이 서로 모이려는 힘을 뜻하고, 부착력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해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뜻한다.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는 물과 유리관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물의 응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리관 안쪽 면에 붙는 물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물기둥이 올라간다. 반면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는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관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수은 입자들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수은 기둥은 아래로 내려간다.

한편 액체의 입자들이 모이려는 힘인 응집력은 표면 장력이라는 힘으로 나타나 액체 표면의 모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공기와 맞닿아 있을 때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말한다. 액체 내부의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 액체 표면의 입자들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 방향으로만 인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액체는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부피이면서 표면적이 최소로 되는 기하학 구조는 구이기 때문에 액체의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면이 오목한 모양을 띠는 것은 물과 유리관의 부착력이 물의 표면 장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은 표면이 볼록한 모양을 띠는 것은 유리관과 수은의 부착력보다 수은의 표면 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이 액체 표면의 모양을 볼록하게 만든다.
- ② 액체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을 받는다.
- ③ 유리관 안의 액체 이동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 ④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보다 강하다.
- ⑤ 응집력은 한 물질 내에서 입자들이 서로 모이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는 힘이다.

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비누를 녹인 물과 순수한 물에 동일한 유리관을 각각 넣은 다음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누를 녹인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가 순수한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보다 낮았다.

(나)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깨끗한 유리 표면에 각각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 결과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에는 볼록한 물방울이 맺혔으나, 깨끗한 유리 표면에는 물이 넓게 퍼졌다.

①(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

은 순수한 물의 경우와 달리 물의 응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겠군.

②(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이 순수한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보다 강하기 때문이겠군.

③(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깨끗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보다 약하기 때문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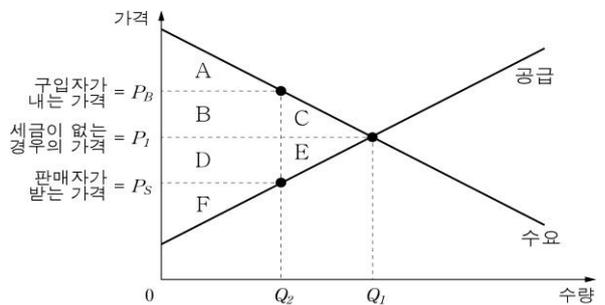
④(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

리 표면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떨어뜨렸을 때에 비해 물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겠군.

⑤(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방울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보다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겠군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그림>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림>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1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이다.

<그림>에서 ㉠세금이  $P_3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1에서 P<sub>B</sub>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1에서 P<sub>S</sub>로 낮아져 F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sub>1</sub>에서 Q<sub>2</sub>로 감소한다.  $P_3P_B$ 에 Q<sub>2</sub>를 공급한 값인 B+D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잉여: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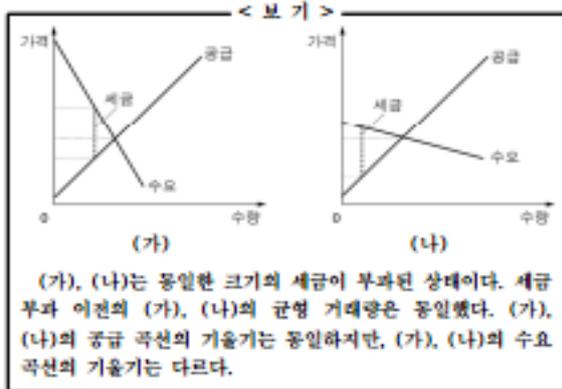
\*생산자 잉여: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4. 윗글을 바탕으로 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5.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보기>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

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 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 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 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기>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ㄴ.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ㄷ.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ㄹ.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 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규범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규범력을 유지하거나, 질서 정연하고도 집약적으로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㉔** 다르다.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로 **㉕** 나뉜다. **㉖** 개정 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더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무한계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여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㉗** 밝힌다. 그러나 개정 무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㉘**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㉙**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한계설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所在)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㉚**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법: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법.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의 담고 있다.

②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③ 개정 한계설에 따르면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구별된다.

④ 개정 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개정 무한계설은 현재의 헌법 규범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

8. '개정 한계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 국가의 헌법 제정 권력은 귀족들이었으며 A 국가의 헌법에는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새로운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

① 기존 헌법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②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③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④ 군주제였던 국가 형태가 민주제로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⑤ 기존의 헌법이 소멸되고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9. <보기>를 통해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세기 근대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법률 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오직 법 자체의 형식 논리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연법사상과 대립된다.

①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을 지지하겠군.

②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을 인정하겠군.

③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을 주장하겠군.

④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은 자연법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

⑤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에 수긍하겠군.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상등하다
- ②㉡:분포된다
- ③㉢:피력한다
- ④㉣:승계할지라도
- ⑤㉤:소급되는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제2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음이 울렸던 순간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시간 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點)과 같은 순간이므로 과거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의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라고 답한다.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후설(Husserl)에 따르면 현재가 '파지-원인상-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 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되는데, 이를 '현재화' 작용이라고 한다. 원인상은 음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한다. 그런데 제2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들은 제1음

은 변양된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 있다. 이처럼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파지이다. 또한 제2 음을 들을 때 아직 듣지 않은 음을 예측하듯이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지이다. 예지는 충족 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 따라서 제2음을 들을 때 제1음이 들었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평 형성에는 '현전화'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전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현전화에는 우선 회상이 있다. 파지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라진 것을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 회상이다. 또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라고 한다.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화와 융합되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어 생생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가 유기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관심이나 주의력에 따라 파지와 예지, 회상과 기대의 정도가 달라져 현재의 지평도 변한다. 예컨대 프로듀서가 휴양지에서 휴식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 보다 음반 출시를 위해 음악을 들을 때 현재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화는 현재의 지평에 대한 통일적 인상을 변화시킨다. 제1, 2음을 들으며 제3 음의 높낮이를 예측할 때,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그 세 음들에 대한 나름의 통일적 인상을 갖는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제3음이 들려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제1, 2, 3음에 대한 이전의 인상도 달라져, 그 세 음들에 대한 통일적 인상도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체험적 시간관을 통해 인간은 항상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된 사물을 보거나 '뻑' 하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순간만을 지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지각하거나 회상과 기대를 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련한 스토리를 만들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고 보았다.
- ② 현재화는 현전화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다.
- ③ 과학적 시간관에서 현재는 점과 같은 순간이다.
- ④ 현전화는 현재의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 ⑤ 인간은 고정된 대상을 보면서도 스토리를 만들려 한다.

1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의식이다.

② 현재의 지평은 개인의 주의력과 무관하게

신축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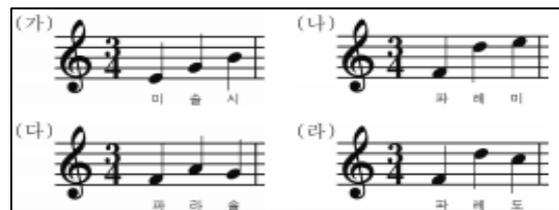
- ③ 파지는 잊힌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한다.
- ④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아는 통일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
- ⑤ 기대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지와 다르다.

1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가) ~ (라)를 듣는 청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모의 '함축-실현' 이론에 따르면 청자들은 음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음 음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한다. 한 예로 세 음을 연속해서 들을 때, 앞의 음정이 '미'와 '솔', '파'와 '라' 사이처럼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일 경우, 앞 음정이 상행이면 뒤 음정도 상행, 앞 음정이 하행이면 뒤 음정도 하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파'와 높은 '레' 사이처럼 앞의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이라면 앞 음정과 반대의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 음정: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 ① (가)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을 함께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가)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 ③ (나)의 제2음을 듣는 순간 일어난 예지가 제3음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 ④ (다)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 ⑤ (라)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 미리 당겨진 음에 대한 인상이 제3음을 들을 때 느낀 인상과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14. 윗글의 '후설'이 <보기>의 '브렌타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브렌타노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변양된 상태로 떠오르는데, 이는 지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직전에 본 장면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상상의 생생함으로 인해 생겨 나는 가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 ①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 ② 직전에 본 장면을 떠올릴 때는 변양이 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 ③ 지각한 것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 ④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 ⑤ 시간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 연상은 생생할 수 없습니다.

##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시에서 업무, 상업, 주거, 공업 등 각종 기능 지역이 나름 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내부구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내부구조는 어떻게 형성될까?

20세기 전 반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심원 모델과 선형(扇形)모델이 제시 되었다. 먼저 동심원모델은 19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 내부구조를 모형화한 것으로, 도시가 도심 중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커진다고 보았다. 즉 도심의 인접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점차 이곳이 과밀화되고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심 인접 지역 바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부 거주자들이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심원의 형태를 띤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동심원모델은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기 때문에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인 지형, 철도, 공업 지대의 위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른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이에 지대(地代) \*와 교통로에 따라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처럼 형성된다고 본 선형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이 모델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살 모양의 간선 교통로가 생기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고급 주거 지구가, 여기에 인접하여 중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철도나 수로(水路)와 같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는 곳에는 경공업 지구가, 그 주변은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내부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 전의 두 모델로는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다핵심모델이다. 도시가 커지면서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 기능 지구가 분화하게 된다. 다핵심 모델에서는 이러한 기능 지구가 다음의 4가지 양상으로 분화한다고 보았다. 첫째, 활동마다 유리한 입지 지점에 따라 분화한다. 예를 들어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도매업 지구가 입지하고, 수륙 교통 관계가 좋은 곳에 공업 지구가 입지한다. 둘째, 어떤 활동은 유리한 입지 지점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지점에 입지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창고 업은 도심 주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은 지대가 비싸서 입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동종의 활동은 집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 분화한다. 그래서 금융기관, 도매업, 소매업 등은 각기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하여 상권을 유지하게 된다. 넷째, 상이한 활동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위치한다. 그래서

주택 지구는 공업 지구와, 소매업 지구는 공업 지구와 서로 분리된다.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도시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을 적용하여 도시내부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도시의 각종 기능 지역들이 배치된 질서와 논리를 규명하여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대(地代): 지료(地料).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외의 물건.

15.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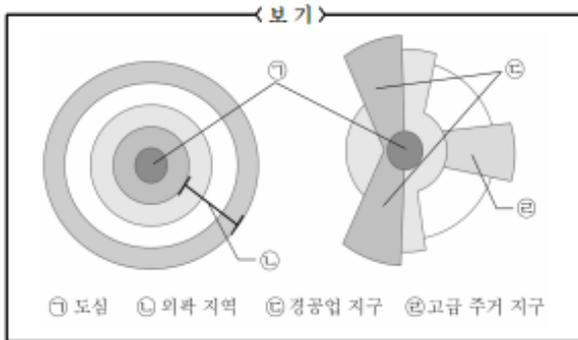
- ①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가설들에 대한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⑤ 한 이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 ① 도시의 기능 지역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된다.
- ② 다핵심모델은 도시 내부가 복잡해지면서 등장하였다.
- ③ 동심원모델은 여러 도시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모델이다.
- ④ 도시내부구조의 파악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⑤ 선형모델은 주거 지구의 형성이 교통로의 발달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17. 윗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시내부구조는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겠군.
- ② 인구 유입과 환경 요인 등으로 ㉣이 형성되었겠군.
- ③ 대규모 교통 시설이 입지하는 곳에 ㉢이 형성되었겠군.
- ④ 간선 교통로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이 형성되었겠군.

⑤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는 ㉢의 인접 지역에 형성되었겠군.

18 [A]를 통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의 공업 지구인 ㉦는 수륙 교통 관계가 좋고, 창고업 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다.

\*○○시의 ㉣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시의 ㉤는 도심 주변의 주택 지구이다.

- ① ㉦는 ㉣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형성된 것이겠군.
- ② ㉦에 수륙 교통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공업 지구가 형성될 수 있었겠군.
- ③ ㉦는 창고업이 입지한 것으로 보아 도심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지불하는 곳이겠군.
- ④ ㉣는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집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겠군.
- ⑤ ㉣는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매업이 입지하는 것이 쉽겠군.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에는 조상과 성현의 높은 덕행을 기리고 권계(勸誡)하기 위해 제사를 중요시했다. 조선 시대 자화상을 비롯한 대다수의 초상화는 이러한 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조선 시대 대부분의 초상화는 별도의 배경이나 현실 공간에 대한 묘사 없이 초상화의 주인공 공만이 다소곳이 화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 인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경건한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얼굴이 정면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진 칠분면이나 팔분면을 취하게 하고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화폭 속 인물에 대해 공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한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노출시키지 않거나 예의 바른 공수 자세를 취하게 한 것도 숭양심(崇仰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조선 시대 초상화가는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나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그려 내고자 했다. 예를 들면 임금의 초상인 어진은 용포를 입은 군주의 외모를 통해 위풍당당한 모습을 표현했고, 공신상의 경우도 관복을 입은 외모를 통해 위엄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대부상의 경우 야복\*으로 욕심 없는 은일의 태도를 표현하거나 관복으로 유학자의 풍채를 보여 주기도 했다.

조선 시대 초상화는 얼굴이나 의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인물의 실체

감을 더 강조하는 화법으로 변모해 갔다. 특히 안면이나 옷 주름의 음영 묘사는 평면적인 묘사 기법에서 후기로 갈수록 안면이나 옷 주름 선 주변에 형성된 음영을 나타내어, 입체적인 느낌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도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처럼 조선 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표현했다. 즉 조선 시대 초상화가는 초상화 속 인물과 실제 인물과의 내외적인 닮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초상화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커다란 크기로 사당이나 서원에 걸렸고, 우리 조상들은 초상화 속 인물을 단순한 그림 속 인물이 아닌 조상과 성현 그 자체로 인식했다.

19. '조선 시대 초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 초상화는 조상과 성현에 대한 제사의 영향을 받았다.
- ②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 인물의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 ③ 조선 시대 초상화는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절제된 군자의 자세를 드러냈다.
- ④ 조선 시대 초상화의 커다란 크기는 초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관련 있다.
- ⑤ 조선 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기 위해 평면적인 묘사 기법을 유지했다.

20. 뒷글을 읽고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손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얼굴을 부각하려고 한 것 이겠군.
- ② 야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인물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겠군.
- ③ 옷 주름 선 주변에 음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입체감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겠군.
- ④ 안면을 우측으로 돌려 팔분면을 취한 것으로 보아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 것이겠군.
- ⑤ 특별한 현실 공간을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는 사람이 인물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겠군.

21. 뒷글의 ㉠과 ㉡의 '초상화 그리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는 인물의 내적 세계인 정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아닌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고 보색의 병치를 활용하여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까지 초상화에 표출되기도 했다.

- ① ㉠과 달리 ㉡은 인물이 지닌 미덕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에 주목하였다.
- ② ㉠과 달리 ㉡은 인물의 모습을 사진처럼 똑같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 ③ ㉠과 달리 ㉡은 인물의 내적 세계의 표현을 중요시하면서도 외적 유사성을 추구하였다.
- ④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가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였다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교에서 '성인'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순자는 누구나 ㉠'심(心)'을 수양하면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수양론에는 인간이 이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

순자에 따르면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는 '도(道)'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다. 즉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에 방해를 받아서 ㉞편견(偏見)에 빠지기 쉽다.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순자는 이렇게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㉝'폐(蔽)'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심이 폐의 상태가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순자는 인간이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허(虛)', '일(壹)', '정(靜)'을 제시하고 있다. '허'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기존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 편견이 생기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이 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심이 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을 서로 ㉞혼동(混同)하지 않고 도에 집중하게 되어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심이 정(靜)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하여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

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㉞인식(認識)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순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대청명(大淸明)'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에 ㉞정진(精進)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2. 윗글에 나타난 '순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② 일은 사물의 구별이 없이 통합된 심의 상태이다.
- ③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 ④ 성인은 대청명이라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⑤ '심'이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면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23. ㉝,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㉝이 ㉞이 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 ② ㉝은 수양의 과정을 통해 ㉞에 도달할 수 있다.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③ ㉠, ㉡ 모두 도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

④ ㉠은 ㉡과 달리 외적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⑤ ㉡은 ㉠과 달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4.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장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자는 '도(道)'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허일정을 심(心)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날마다 덜어냄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군.

②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군.

③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군.

④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군.

⑤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임.

②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③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함.

④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⑤ ㉤: 여럿 가운데서 앞서 나아감.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하나를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 그림은 미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학자 뒤프렌은 그 그림은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미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미적 지각이 시작될 때 비로소 미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자가 현전(現前), 표상(表象), 반성(反省)이라는 미적 지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미적 대상을 점점 더 심오하게 이해한다고 보았다.

뒤프렌에 따르면 현전은 감상자가 작품의 감각적 특징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목하는 단계이다. 즉 색채, 명암, 질감 등에 매료되어 눈이 커지거나 고개를 내미는 등의 신체적 자세를 ㉠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현전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은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감각적 소재'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전은 미적 대상의 의미를 막연하게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현전의 막연함은 표상을 통해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표상은 작품을 상상력으로 지각하는 단계이다. 상상력은 감상자가 현전에서 파악한 것에 시공간적 내용과 구체적 상황을 추가해 풍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은 감상자가 작품을 특정 대상이나 현실이 묘사된 '재현된 세계'로 이해하게 한다. 예를 들어 푸른색이라는 감각물에 눈동자가 커지면서 주목하는 것이 현전이라면, 푸른색을 보고 '가을날 오후 한적한 시골의 맑고 넓은 창공'이라는 세계를 떠올리는 것이 표상이다. 하지만 표상은 환상을 만들게 된다.

표상이 만든 환상은 반성을 통해 극복된다고 뒤프렌은 생각했다. 반성에는 비평적 반성과 공감적 반성이 있다. 비평적 반성은 구도, 원근법, 형태 묘사와 같은 기법, 예술가의 제작 의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상력이 만든 감상자의 표상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비평적 반성을 통해 감상자는 작품의 의미를 표상의 단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뒤프렌은 비평적 반성만으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 수준에 그친다고 보았다. 객관적인 분석만을 하다 보면 작품 속에 담긴 내면적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감상자의 미적 지각은 공감적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였다. 공감적 반성은 작품이 자아내는 내면적 의미를 감상자가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감동을 얻는 단계이다. 이 감동은 작품의 내면적 의미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감상자가 예술가의 감

정이 '표현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면서, 그 세계와 자신의 내면세계가 일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뒤프렌은 감상자가 작품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적 대상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 미적 지각의 역할을 중심으로

② 미적 지각은 어떤 단계를 거칠까?

- 미적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③ 미적 체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미적 지각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④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은 어떤 관계일까?

- 감상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⑤ 미적 대상의 역동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공감적 반성을 중심으로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상자가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부터 예술 작품은 미적 대상이 된다.

② 감상자가 작품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감동을 얻을 수 있다.

③ 상상력이 만든 환상은 객관적인 작품 분석을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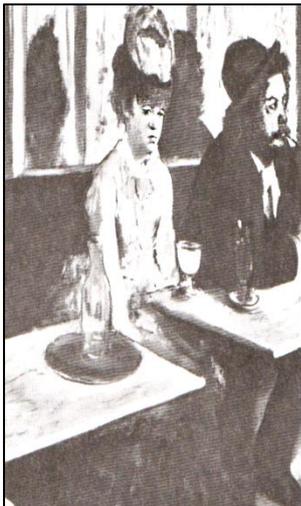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④ 시공간적인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감상자는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⑤ 예술가의 제작 의도에 대한 파악만으로는 작품에 담긴 내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감상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그림은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 한잔'으로, 여인의 흰옷과 남자의 검은옷이 뚜렷하게 대비를 이룬다. 또한 두 남녀의 표정은 다소 침울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기2>

ㄱ. 두 남녀의 의상에 드러난 명암의 차이가 눈에 띄어서 시선이 갔다면 현전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ㄴ. 명암의 차이를 통해 두 남녀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을 떠올렸다면 표상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ㄷ. 유럽의 작은 도시의 카페에서 두 인물이 누

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비평적 반성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ㄹ. 두 인물의 침울한 표정에서 느낀 도시인의 고독감이 자신의 고독감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다면 공감적 반성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9. ㉠과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① 그는 모자라는 돈을 친구에게서 취했다.

②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③ 수술 후에 어머니는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

④ 물질적 이익만을 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⑤ 그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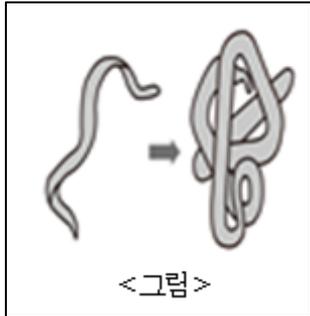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소포체 스트레스'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소포체는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소포체로 유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칼슘 농도 변화 등이 발생하면, 단백질이 정상적인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는 변성이 일어나 비정상적 단백질이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변성은 소포체 내의 '단백질의 접힘(folding)'과 관련이 있다. 단백질의 접힘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정교하게 꼬이고 접히고 감겨서 복잡한 입체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이 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소포체는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를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라 한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백질의 하나인 GRP78이 소포체 막에 위치한 PERK, IRE1, ATF6 등에 결합하여 이들의 활성을 억제한다. PERK, IRE1, ATF6은 소포체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sensor)인데,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센서에서 GRP78이 분리되어 센서는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센서 중 PERK는 단백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IRE1과 ATF6은 단백질의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인 샤페론의 양을 늘린다. 증가한 샤페론은 비정상적

으로 접혀 있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접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되어 분해된다. 만약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소포체가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개체의 유익을 위하여 소포체는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소포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포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기 치유 능력인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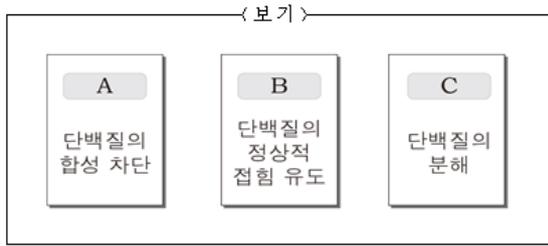
3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포체는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 ②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은 그 구조가 입체적으로 바뀔 때 변성된다.
- ③ 소포체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된다.
- ④ 소포체는 전체 개체의 유익을 위해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 ⑤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31. <보기>는 ㉠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 ① A가 일어날 때 센서는 GRP78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
- ② 샤페론의 양이 증가하면 B가 일어난다.
- ③ A와 B에 관여하는 센서는 서로 다르다.
- ④ B를 거친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C를 통해 정상적으로 바뀐다.
- ⑤ 소포체 내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된 후 C가 이루어진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가) '세포자멸사'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의 발병 원인 중의 하나임을 밝혀냈다.
  - (나) 다발성 골수암의 암세포에 특정 약물을 투여해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얻었다.
- ① (가)를 보니 퇴행성 신경 질환은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겠군.
  - ② (가)를 보니 퇴행성 신경 질환을 치료하려면 소포

체에 비정상적 단백질이 유입되어야겠군.

- ③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소포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로 볼 수 있군.
- ④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약물로 볼 수 있군.
- ⑤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단백질 구조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약물로 볼 수 있군.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금전적으로 갚아 주는 제도이다. 이는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과 '행정상 손실보상(損失補償)'으로 구분된다.

[A]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심의회에 지급 신청을 한 경우, 배상심의회 결정이 신청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행

**바른 국어 다른 결과**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정상 손실보상은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기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작용의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송을 행정기관에 제기하느냐 법원에 제기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작용을 취소·변경하거나 각종 처분을 내린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것에 비해 개인의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권익을 침해 받은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 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급박한 사안일 때 가능하다.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행정작용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작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행정작용의 취소 등이 공공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면 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익 추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영조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

##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행정쟁송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행정구제제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행정상 손해배상의 문제점을 밝히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행정구제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⑤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절충하고 있다.

## 34,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소송의 성립 요건
- ②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 ③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
- ④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⑤ 행정상 손실보상의 도입 취지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3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배상 신청자가 배상심의회 결정 받아 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 ②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행인이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주민들을 위한 도로 공사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④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의 식당은 구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고 한 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 ① '갑'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겠군.
- ②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갑'의 상황을 급박하다고 인정한 것이겠군.
- ③ '갑'이 행정기관에 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군.

- ④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군.
- ⑤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도 되겠군.

# 서성수 국어 3주차 쉬운 문제

---

지문별 답

23

3211

4453

2551

3355

523

2155

243

244

2253